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사이버대학교 (2007)

서울사이버대학교

2015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1월 19일(월)부터 원서접수
입학문의 02-944-5000

최고 교수진
최첨단 16,000㎡ 캠퍼스



방송국 수준 스튜디오



멀티미디어 강의실



차이코프스키홀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4호선 2007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서울사이버대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하철 4호선 **미아(서울사이버대학)역**입니다.

Seoul Cyber University 2015 Winter Vol. 27

세상을 움직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

SCU e야기

2015 DT BRAND POWER

DT브랜드파워대상



2015 WINTER
Vol. 27

SCU SPECIAL

제11회 SCU 한마음 대축제
2014 웨어워드 코리아 최우수상 수상

SCU FOCUS

베트남 해외사회봉사 및 역사탐방
SCU 미래사회연구소 공동학술 심포지엄

SCU CLASS

한국예술종합학교 홍승찬 교수 특강

SCU WAVE 사회봉사단 일원으로
연탄봉사활동에 참여한
상담심리학과 김지영 교수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Landscape with Memories

2011
송인현 Song, In Hun

기억의 그리스 풍경

송인현은 시리게 푸른 청색과 눈부신 흰색의 조화를 통해 작가 자신이 추억하는 그리스 바닷가 마을을 화폭에 담았다. 우리는 이러한 풍경을 통해 작가의 기억에 의해 재구성된 새로운 그리스를 만난다. 그의 감성과 기억, 느낌으로 번안되고 해석된 이미지를 접하는 것이다. 작가의 개인적인 감수성과 더듬이를 통해 나온 특별한 세계상을 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contents

SCU Special

- 04 • 05** 제11회 SCU 한마음 대축제
- 06 • 07** 제7회 한·미 친선 송년음악회
- 08 • 09** 2014 웹어워드 코리아 최우수상 수상
- 10 • 11** ‘희망서울’ 같이 가치 축제
- 12 • 13** 뮤지컬 킹키부츠 단체 관람
- 14 • 15** 경상학부 공동학술대회

SCU Focus

- 16 • 17** LA 온라인 대학 교육 설명회
- 18 • 19** 제2차 한러대화 – 한러총장 포럼
- 20 • 21** 제13기 베트남 해외사회봉사 및 역사탐방
- 22 • 23** ‘라오스 원격교육 역량강화’ 과정
- 24** 한-아세안 이러닝 학생 초청 프로그램
- 25** SCU 미래사회연구소 공동학술 심포지엄
- 26 • 27** 해외명사 인터뷰

SCU Today

- 28 • 29** 중앙서울마라톤대회 참가
- 30**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 31** 다문화가정 가족사진 촬영
- 32** 2014 서울사이버국제디자인대전
- 33** 한·러 경제포럼

SCU Class

- 34 • 35** 사회복지학부 역량강화사업
- 36 • 37** 상담심리학부 경쟁력사업
- 38**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 특강
- 39** 한국예술종합학교 홍승찬 교수 특강
- 40** 스웨덴 평등옴부즈맨 초청강연
- 41** 건축학개론 현장학습

SCU News

- 42 • 47** 학교소식
- 48 • 50** 교수동정
- 51** SCU 문화산책





제11회 SCU 한마음 대축제 장기자랑 현장

가 숨 이 뜨 거 워 지 는 화 합 의 시 간

제11회 서울사이버대학교 한마음 대축제

- 전국에서 모인 서사대인들이 한데 어우러진 열띤 교류의 장
- 교우애를 쌓고 애교심을 확인하는 체육대회 및 장기자랑 진행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1월 15일 대운동장에서 구성원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제11회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했다. 재학생과 교수, 교직원 등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가족들이 총출동한 이날 행사는 ‘화합’, ‘소통’, ‘사랑’, ‘열정’ 네 팀으로 나뉘어 우승을 차지하기 위한 열띤 경합을 벌였다.

오전 8시 30분부터 치러진 체육대회는 제일 먼저 남자 축구, 여자 피구 게임을 한 뒤 강인 총장의 성화 점화로 개막식을 알리고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구성원들의 일치된 협력이 필수인 파도타기·날아라 양탄자·지구날리기·풍선기둥 세우기, 팀 대표들이 나와 1:1로 힘을 겨루는 글레이에이터, 순발력을 발휘해야 하는 앵그리버드·장애물 릴레이 등 명랑운동회 1부, 2부, 3부의 각 프로그램은 개인능력보다는 팀워크가 필요한 구성으로 성별과 나이 구분없이 함께 즐기며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체육대회를 마친 뒤엔 장기자랑이 이어졌다. 각 팀들은 축제를 위해 갈고 닦아온 노래실력과 댄스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축제의 최종 우승은 모든 게임에서 고른 플레이를 펼친 사랑팀이 차지했다. 사랑팀에게는 1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되었으며, 장기자랑 및 즉석게임에서 아낌없이 끼를 표출한 학우들에게도 전기밥솥, 인덕션, 커피메이커 등의 푸짐한 선물이 증정됐다.

학우들의 호응 속에 행사를 마무리한 이성태 학생처장은 “올해 축제는 화합, 소통, 사랑, 우정 등의 팀명부터 우리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지는 의미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한마음 대축제를 통해 학생들이 온라인에선 경험할 수 없는 추억을 많이 쌓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맨 처음 시합으로 실시된 각 팀별 축구대항전



지구날리기 게임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 모습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 점화식에서 강인 총장



제11회 SCU 한마음 대축제 시상식 현장



제7회 한·미 친선 송년 음악회

-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한·미 동맹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모색
- 관객들의 만족도 높은 품격 있는 연말 공연으로 자리 잡아

2014. 12. 14(SUN) 3:00 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Sunday, December 14, 2014 at 3:00 p.m.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주최

주한 미8군 사령부
Eighth Army

서울사이버대학교
SEOUL CYBER UNIVERSITY

후원

예술의전당
Seoul Arts Center



음악회 시작 전 재학생과 강인 총장 및 최영철 사단장과의 기념 촬영



(사진 왼쪽부터) 버나드 S. 삼포우 중장 부부, 강인 총장



공연을 마치고 소프라노 오미선 교수와 테너 신동원 님과의 기념 촬영



일일이 악수하며 군악대를 격려하는 버나드 S. 삼포우 중장과 군관계자들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들과 함께 나눈 특별한 송년 음악회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주한 미8군 사령부가 주최하는 ‘제7회 한·미 친선 송년음악회’가 12월 14일(일) 서울시 서초동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은 강인 총장과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직원, 버나드 S. 삼포우 중장(미8군 사령관)과 미군 인사, 15사단 최영철 사단장을 비롯한 우리 군 인사들이 참석해 한·미간 우애를 다졌다. 특히 재학생들도 함께 참석하여 공연을 즐기고 송년 분위기를 한껏 만끽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공연을 맞아 강인 총장은 “오늘 공연이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미국 장병들을 위로하고 한·미간 우호와 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남겼고, 버나드 S. 삼포우 중장(미8군 사령관)도 “음악은 세계의 공용어인 만큼 이날만큼은 미8군이 가족뿐 아니라 한국 친구 분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인사말을 남겼다. 이번 음악회 1부는 미8군 군악대와 제2사단 군악대의 공연으로 크리스마스 캐롤 등 시즌에 어울리는 선곡으로 10곡을 연주했고 2부에서는 세계 오페라계의 거장 마에스트로 마르코 발데리의 지휘와 성남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소프라노 오미선 교수, 테너 신동원의 무대가 이어지며 베르디의 ‘축배의 노래’ 등 귀에 익숙한 6곡의 아름다운 가창곡을 공연했다.



교육부문, 모바일웹서비스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사이버대학교

가 장 혁 신 적 이 고 우 수 한 사 이 버 교 육 웹 사 이 트 , S C U

‘2014 웹어워드 코리아’ 2개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11회 웹어워드코리아 교육부문, 모바일웹서비스부문 최우수상 수상
- 대내외적으로 서울사이버대만의 차별화된 교육인프라와 웹 디자인 인정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지난 12월 16일(화)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웹어워드 코리아 2014’에서 교육부문과 모바일웹서비스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웹어워드 코리아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는 웹사이트 시상 행사로, 인터넷전문가 2,000명으로 구성된 웹어워드 평가위원단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온라인 평가심사에 따른다. 부문별로 비주얼디자인, UI, 기술, 콘텐츠, 마케팅, 서비스 측면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들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행사다.

교육부문 사이버대학 분야의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http://www.iscu.ac.kr/main/main.asp>)는 사이버대학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 대학 홍보 강화와 사용성에 중점을 두고 제작을 하였으며, 모바일웹서비스 부문 문화/교육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모바일홈페이지(<http://m.iscu.ac.kr>)는 인포그래픽을 통한 간결한 UI를 구현하여 모바일 사용성에 최적화하여 제작하였다.

허묘연 부총장(상담심리학과 교수)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웹표준과 웹접근성을 한층 강화하여 다양한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대학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모바일홈페이지(<http://m.iscu.ac.kr>)로도 급변 입시모집부터 입학지원(4단계까지)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리뉴얼 오픈하였으며, 사이버대학 선두대학으로서 앞으로도 사용성을 고려한 온라인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념촬영하는 허묘연 부총장, 출판부 홈페이지 운영팀 교직원과 구축기업인 MG소프트 대표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표로 수상하는 허묘연 부총장



시상식이 거행된 롯데호텔월드(잠실) 크리스탈볼룸홀



서울시 주최 캠페인에서 봉사 활동 펼친 SCU WAVE 봉사단과 가족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울사이버대의 행복한 나눔 ‘희망서울’ 같이 가치 축제 참가

- 서울시가 주최한 봉사 캠페인에 SCU WAVE 사회봉사단 참가
- 여러 개인 및 단체 중 최대 규모 봉사자 참여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재학생과 교수 및 직원들로 구성된 ‘SCU WAVE 사회봉사단’을 주축으로 ‘희망서울’ 같이 가치 축제에 참가했다. 이 행사는 세계빈곤퇴치의 날(10월 17일)을 맞아 서울시와 굿피플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포장해서 노인, 노숙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행사이다. 10월 18일(토)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서울사이버대학 SCU WAVE 사회봉사단이 재학생, 교직원, 가족 등 약 50여 명과 함께 자선봉사활동에 동참했다.

이날 참가한 봉사자들은 기업과 시민들이 제공한 의류와 운동화를 분류하고 정리하여 한 세트씩 보자기로 포장하는 작업을 했다. 이날 모인 의류와 운동화의 수량은 총 62,847벌로 약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만 5천여 벌은 서울시 희망 옷 방 및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국내 취약계층 및 노숙인에게 전달하고 3만 7천여 벌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동쪽 모잠비크 해협 400km 부근에 위치한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나라로 1인당 국민소득이 400달러 미만인 세계 최빈국 중 하나다. 특히 마다가스카르의 수도 안타나나리보 빈민 천막촌은 오물과 쓰레기가 가득한 지역으로 어린이들이 이른 아침부터 쓰레기를 줍기 위해 20km를 걸어 7시간 동안 노동하고 2,200아리(한화 약 1천 원)를 벌고 있는 등 어려움이 많아 의류와 운동화 지원이 절실한 곳 중 하나이다.

한편 이번 행사의 공식 후원사로 내빈 방문을 한 서울사이버대학교 강인 총장은 “나에게는 쓸모없는 물건일지라도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는 더 없이 가치 있는 물건이 될 수 있듯, 작은 실천이 큰 관심과 사랑으로 전해질 수 있다”며,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함께 뜻 깊은 자리에 동참해 즐겁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SCU WAVE 사회봉사단과 이웃을 위한 나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주요 후원사 자격으로 참석한 강인 총장(왼쪽에서 세 번째)



캠페인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지원 물품 포장 방법 시연



지원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캠페인 홍보물



국내외에 전달되는 신발과 의류를 포장한 지원 물품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을 위한 뮤지컬 킹키부츠

■ 재학생 및 예비입학생 1,200여 명, 뮤지컬 킹키부츠 단체 관람

■ 문화를 사랑하는 대학,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려



재학생 및 예비 신·편입생이 함께 관람한 뮤지컬 킹키부츠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15년 첫 문화행사로 1월 17일(토)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재학생 및 교직원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뮤지컬 킹키부츠를 단체로 관람하였다.

이날 행사는 강인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재학생 그리고 특별히 2015학년도 서울사이버대학교에 합격한 예비 신·편입생들도 함께 하여 더욱 특별한 행사가 되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후원한 뮤지컬 킹키부츠는 브로드웨이에 이어 전 세계 최초 한국에서 라이선스 공연으로 선보인다. 1980년대 영국 노샘프턴의 수제화 공장들이 경영악화로 연이어 폐업을 하던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공장의 실제 성공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킹키부츠는 전설의 팝 디바 신디 로퍼가 직접 작사·작곡한 음악과 배우 오



뮤지컬 공연 실황 모습



배우 오만석 등 출연 배우와 함께 기념 촬영하는 강인 총장과 교직원들

만석, 김무열, 지현우와 고창석 등 최고의 캐스팅이 합쳐져 믿고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날 공연을 본 관객들은 12cm 부츠 위에서 아슬아슬한 곡예를 펼치는 배우들의 연기와 관객의 혼을 쏙 빼놓는 신명나는 음악, 그리고 기적 같은 성공스토리까지, 뮤지컬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문화행사에 처음 참석한 예비 신·편입생들은 “지식 뿐만 아니라 감성까지 채울 수 있는 대학에 들어온 것 같다”며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준 대학 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 관람을 신청을 하고 현장에서 특별히 마련된 부스에서 표를 배부 받아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이 끝난 뒤 강인 총장은 오만석 등 출연 배우들을 만나 “연기, 음악, 스토리 등 뮤지컬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완벽히 갖춰진 멋진 공연이었다”며 배우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한편, 지난 12월 2일 처음 공연을 시작한 뮤지컬 킹키부츠는 뛰어난 작품성과 배우들의 호연으로 개막 후 예매처 랭킹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는 2월 22일까지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매표소 현장에 설치된 서울사이버대학교 부스



초대권을 배부 받고 있는 재학생들 모습



공동학술대회를 마치고 참가자 전체 단체 기념 촬영

셋 이 모 여 더 큰 하나 를 이 룬

2014 경상학부 공동학술대회 현장

- 최초로 경상학부 3개 학과 공동학술대회 및 연합 MT 개최
- 1박 2일 동안 서로를 알아가며 모두 하나 되는 기회를 만들어

interviewee : 이락경 학우(경영학과 3학년)

1박~2일! 경상학부가 뭉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며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이락경입니다. 이번 경상학부 연합 MT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 동안 가평 기화리조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경영학과, 국제무역물류학과, 금융보험학과 학우들이 공동으로 학술발표회와 모두가 하나 되는 MT를 즐겼습니다.

화합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해 오프라인 학과활동을 하면서부터 늘 연합 MT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학우분들이 대부분 직장인이시고 오프라인 모임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속한 학과 활동에 주력하시니까 다른 과와 만남의 기회가 없는 것이 늘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상학부 연합 MT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3개 학과의 화합입니다. 같이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구성하고 장기자랑, 축하공연, 불꽃놀이, 캠프파이어 등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슈퍼스타 K 출신 가수 이보영씨의 축하 공연 현장



축하 공연 전 기념 촬영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즐기고 있는 모습



캠프파이어 현장에서 단체 기념 촬영



경상학부 공동학술대회 커뮤니케이션 특강 현장

우리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1박 2일 동안 많은 순간들이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불꽃놀이와 캠프파이어를 했던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열정을 닮은 불꽃 아래에서 서로의 꿈을 공유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느낀 점이 있다면 경상학부의 최대 강점은 학업이면 학업, 활동이면 활동,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즐기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갑시다

서사대인으로서의 저의 각오는 재학 때는 물론이거니와 졸업을 해서도 학과와 학부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 서사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온라인 대학이지만 일반 오프라인 대학보다 더 멋진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우분들도 모니터에서 나와 학교행사나 학과, 지역 행사에 많은 참석을 해주셔서 학업뿐 아니라 좋은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대학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

재미동포를 품은 서울사이버대학교

■ 원대협과 서울사이버대학교 외 사이버대 7곳, LA 교육 설명회 성황리에 개최

■ LA한인상공회의소 · 미주한국학교연합회 MOU 체결, 재외동포 입학 시 장학혜택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2월 6일과 8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월드미션대학 채플룸(1차), 한길교회(2차)에서 '대한민국 재외동포 교육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700만 재외동포들에게 온라인 교육을 통한 고등평생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 문화의 한류 방안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전국 21개 온라인대학 운영협의체인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이하 원대협)와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비롯, 경희사이버대, 대구사이버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원광디지털대, 서울디지털대, 숭실사이버대, 한양사이버대 등 8개 사이버대학들이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정상원 대학원 부원장(중앙)과 8개 온라인 대학 대표



진지하게 교육 설명을 듣고 있는 재미동포

이번 설명회에는 LA에 거주하는 한인이 몰려 한국의 사이버대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미국에 이민온 뒤 시간에 쫓겨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거나 유학을 중도에 포기한 중년층이 대거 몰려 큰 성황을 이루었다.

교육 설명회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온라인대학 현황 ▲학과소개 ▲지원방법 ▲교육방법 ▲자격증 취득방법 ▲학비·장학혜택 등이다. 특히 교육 설명회에 앞서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전석호), 미주한국학교연합회(회장 박줄리)와 교육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회원이 8개 온라인대학에 학사교육과정 입학 시 30% 이상의 장학금을, 대학원 입학 시 20% 이상의 장학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특히 서울사이버대학교는 50% 이상 장학혜택을 주어 그 어느 대학보다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은 학술교류, 세미나개최, 온라인 교육 공동연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본교를 대표하여 설명회에 참석한 정상원 대학원 부원장(사회복지학부 교수)은 “재외동포들에게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우수한 교육콘텐츠를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며 “이미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아세안사이버대학 프로젝트 주관대학으로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더욱 차별화된 콘텐츠를 미주지역 동포들에게 제공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최초로 미주지역에서 교육 설명회를 개최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을 통한 대한민국 문화와 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설명회 전 8개 사이버대학 대표들이 모여 회의하는 모습



MOU 체결하는 미주한국학교연합회 박줄리 회장과 원대협 정무성 부회장



‘한러대화 - 한러총장 포럼’에 참가한 대학 대표 단체사진

이세웅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사장, 허묘연 서울사이버대학교 부총장, 김준영 성균관대학교 총장, 서거석 전북대학교 총장, 박승빈 카이스트 대외부총장, 크로파체프 니콜라이 미하일로비치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 총장, 보롭스카야 마리나 알렉산드로브나 남부연방대학 총장, 바가노프 예브게니 알렉산드로비치 시베리아 연방대학 총장, 이바네츠 세르게이 블라지미로비치 극동연방대학 총장, 콕사로프 빅토르 아나톨리에비치 보리스 옐친 우랄연방대학 총장 등

유라시아 온라인 교육의 새 장을 열다!

- 온라인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세웅 이사장, 허묘연 부총장 참석
- 전 세계 고등교육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이러닝 교육에 대해 논의



‘한러대화 - 한러총장 포럼’에서 연설 중인 허묘연 부총장



포럼 후 만찬 (사진 왼쪽부터) 허묘연 부총장, 알렉세이 자바르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 부총장, 허승철 고려대 교수(한러대화 사무국장), 블라디미르 쿠릴로프 극동연방대 부총장, 유지수 국민대 총장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세웅 이사장과 허묘연 부총장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2차 한러대화 - 한러총장 포럼’에 참석했다.

한러대화(Korea-Russia Dialogue)는 한국과 러시아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2010년 시작되었으며 이번 한러총장 포럼은 지난 2013년 러시아 대학 총장들의 한국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개최된 이 행사에는 국내 대학에서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세웅 이사장과 허묘연 부총장을 비롯하여 성균관대학교 김준영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서거석 전북대학교 총장(한러대화 교육과학분과위원장), 부구옥 영산대학교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러시아 측에서는 의장을 맡은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 크로파체프 니콜라이 미하일로비치 총장(러시아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러대화 러측 조정위원장), 극동연방대학 이바네츠 세르게이 블라지미로비치 총장, 시베리아 연방대학 바가노프 예브게니 알렉산드로비치 총장 등이 참석해 양국 간 국제교류 협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총장포럼과 별개로 개최된 학생포럼에는 양국 대학생들이 한러 학생교류 증진을 위한 토론을 했다.

허묘연 부총장은 이번 포럼에 참석한 의의에 대해 “전 세계 고등교육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러닝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참석자들과 함께 공유했다”고 말하며 “양국의 대학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떻게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해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한·러 대학 총장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포럼

허승철 한러대화 사무국장 (고려대 교수)

제2차 한러대학총장포럼이 11월 29~30일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렸다. 2010년 한러 양국 대통령의 합의로 시작된 한러대화(Korea-Russia Dialogue)에서는 2013년 11월 양국 정상에 참석한 가운데 열린 3차 양자 포럼에서 한러대학총장포럼을 발족했고 이번에 2차 총장포럼을 러시아에서 개최한 것이다.

포럼에 한국측에서는 대학교육협의회장인 성균관대 김준영총장, 서거석 전북대총장 (전 대교협회장), 유지수 국민대총장, 김기연 경기대총장, 조무재 울산과학기술대총장, 부구옥 영산대총장 등 13명의 총장, 부총장이 참석하였고, 러시아측에서는 한러대화 러시아측

연구 협력과 연수 장학금 논의 대학생들 포럼도 동시에 열려

조정위원장인 크로파체프 상트 페테르부르크대총장, 야부네츠 극동연방대총장 등 20여 명의 총장 및 부총장들이 참석하였다.

2년 전 APEC 정상회담이 열렸던 극동연방대 “보르스키콜”에서 진행된 이번 총장포럼의 주제는 “교육의 국제화: 러시아와 한국 대학의 사회·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의 러시아와 한국 대학 간의 새로운 협력”이었다. 최근 대학 경쟁과 국제화에 러시아 정부와 교육계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에 주

제를 택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크로파체프 상트 페테르부르크대 총장은 양국 대학들이 상대국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중요성에 대해 확고 필요성을 역설했고, 적사모프 우랄연방대 총장은 심화된 한국학과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러시아의 서쪽 끝의 칼리닌 그라드에 위치한 클레메예프 발트연방대학 총장도 이 지역에 가져다줄 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한국과의 적극적 교류를 희망했다. 한국측에서는 기초과학·공학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교류를 희망하는 대학이 많았다. 서울사이버대학의 허묘연부총장은 한국의 IT 기술에 기반을 둔 사이버교육의 급속한 확산을 설명, 국외가 광활해 원격 교육의 필요성이 큰 러시아 대학 총장들과 관심을 받았다.



지난달 29~30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한러대학총장포럼 뒤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허승철 교수

총장 포럼에선 특히 참가대학에서 온 1명의 학생 대표들이 총장회의와 병행해 학생 포럼을 열고, ‘학생 입장에서 보는 양국 대학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결과를 양국 총장들에게 보고한 점이다. 학생 대표들은 이와 사회과학·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서의 학생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고 상대국 방문 학생의 현지 적응과 수학을 돕는 버디(buddy)프로그램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총장들은 내년도 3차 한러대학총장포럼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중앙일보 2014년 12월 5일자



빈증 '사랑의 집짓기' 행사에 참여한 봉사단

나와 우리가 함께 만드는 SCU

- 베트남에서 펼쳐진 서울사이버대 동계 해외탐방 및 사회봉사
- 특수아동시설인 자래 '한베 소망의 집'에서 장애우 돌봄활동 실시
- 빈롱성 내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행사 참여

서울사이버대학교가 10월 29일(수)부터 11월 1일(토)까지 3박 4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나와 우리가 함께 만드는 SCU 해외사회봉사'라는 주제로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구촌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방문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의식을 배양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총 27명으로 구성된 제13기 WAVE 사회봉사단은 금융보험학과 서영수 교수(평생교육원장 겸임)의 인솔 하에 베트남 호치민 및 인근지역 미토, 구찌, 빈증 등을 방문하여 온정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봉사를 실천하였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값진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

먼저 봉사단은 첫째 날 베트남 남 메콩 강 삼각주 지역에 위치한 미토에서 갯강투어를 통해 베트남의 자연을 경험한 뒤 둘째 날인 30일부터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처음 방문한 곳은 호치민 지역 내 자래 고아원 '한베 소망의 집'이다.

한베 소망의 집은 강종석 원장이 2006년 한국인과 베트남 혼혈아 들을 돌보기 위해 설립한 시설이며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인근 다른 건물로 이전하여 돌보고 있는 특수 고아원이다.



월남전때 베트남의 주요 요새였던 구찌터널 답사

이곳에서 봉사단은 건물청소 및 세탁 등의 허드렛일은 물론 다양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닦아주고 안아주는 따뜻한 손길도 실천하였다. 이어 셋째 날 31일에는 베트남 빈증을 방문해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에 참여하였다. 호치민 사랑의 집짓기 행사는 2001년 김덕규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어 현재까지 1,800여 채의 집이 빈민가에 지어졌으며 메콩 델타 지역의 빈롱성 내의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희망을 주는 행사이다. 봉사단이 행사를 진행한 곳은 선 할머니 댁이었는데 이 집을 새로이 페인트 칠하여, 할머니에게 깨끗하게 완공된 집을 선물하였다. 특히 갖가지 생활용품들과 함께 송아지 한 마리를 서울사이버대학교 이름으로 기증하여 할머니를 감동시켰다.

이러한 봉사활동 외에 역사문화탐방도 함께 진행하였는데 월남전 주요 요새였던 구찌터널, 프랑스 통치 흔적을 간직한 중앙우체국, 노트르담 성당 등을 방문하여 견문을 넓혔다.



집 주인인 선 할머니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모습



건물 벽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남자 봉사단원들



한베 '소망의 집'에서 장애 아동의 발을 씻겨 주는 모습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선진 원격교육 기술을 익히다

- KOICA ‘라오스 원격교육 역량강화’ 과정 연수기관 선정
- 총 22명의 라오스 현지 연수단에게 선진 원격교육 기술 전수



본교 관계자와 라오스 원격교육 역량강화과정 참석자와의 단체 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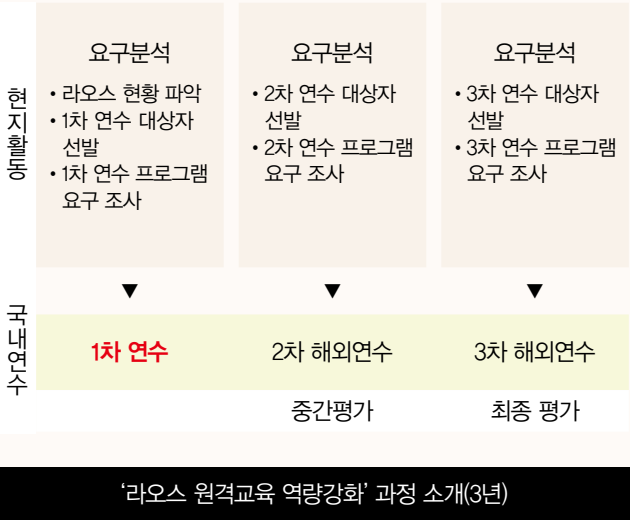
지난 10월 21일(화)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라오스 원격교육전문가의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 이번 견학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 ‘라오스 원격교육 역량강화’ 과정의 연수기관으로 최고의 이러닝 교육기관인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선정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총 3년의 과정으로 기획되어 올해 첫 스타트를 끊은 ‘라오스 원격교육 역량강화’ 과정은 정부의 무상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개도국 관계자들을 국내에 초청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총 22명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라오스 교육체육부 주무 및 협력 부서장, 원격교육 업무 기획관리 경험자 등 원격교육 관련 인사가 초청되었다.

허묘연 부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정보통신기술과 서울사이버대학의 최신 원격교육시스템이 결합하여 미래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리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라오스의 원격교육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정책적, 기술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방문단 또한 허 부총장에게 직접 준비한 기념품을 전달하며 축사에 대해 화답하였다.

환영식 후 방문단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첨단 교육 시설을 둘러보고 직접 프로그램을 시연해 보는 등 우리 대학만의 앞선 이러닝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론 강의가 있을 때는 라오스 현지 원격교육 사정을 고려한 생생한 질문들을 하여 학생 못지 않은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이번 과정은 10월 19일(일)에서부터 11월 1일(토)까지 총 2주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원격교육의 이해, 교육정보화 정책, 강의 콘텐츠 제작기법 등의 관련 일반 강의는 물론 새만금, 전주한옥마을, 경복궁, N서울타워 등의 한국문화체험 기회도 가짐으로써 양국 간의 친교도 돈독히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허묘연 부총장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라오스 참석자 대표
Dr. Somkiat PHASY 교육체육부 ICT 센터장



서울사이버대학교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라오스 대표단



참석자들의 교육 연수 모습

이러닝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하다

- ACU 사무국, 한-아세안 이러닝 학생 초청 프로그램 실시
- 아세안 9개국 대학생, '이러닝 교육과 한국의 사이버대학' 체험



본교 구리당에서 단체사진을 찍는 아세안 9개국 대학생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교육정보화 운영 경험과 기술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일)부터 31일(금)까지 아세안 9개국 대학생 36명을 초청하여 '한-아세안 이러닝 학생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러닝과 한국 선진 분야 체험을 통한 한-아세안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 21세기 지역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 2명, 한국 우송대 재학생 2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이러닝은 물론 한국의 사이버대학 체험, 한국 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총 6일간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한-아세안 양국의 학생들에게 ▲ACU 프로젝트를 통한 이러닝을 활용한 고등교육의 가치를 인지 ▲디지털 선진 기술을 체험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인 학습 기회와 창의적 리더십 활동을 통한 아세안 21세기 인재 역량 함양 ▲학생 스스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21세기 인재의 핵심 역량을 갖추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5년 아세안 공동체 결성에 앞서, 각 국가 젊은 세대 간 교류와 협력 기회를 마련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사이버교육 한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 있다.



가고 싶은 서울명소에 대해 그룹별로 토의하고 있는 모습



지하철을 타고 서울투어를 하는 참가자들

통일시대를 여는 신개념 교육을 논하다

- 북한이탈주민학회·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연구소 공동주최
- 통일시대의 신개념 교육방식으로 블렌디드러닝(Blended Learning) 제안



2014 북한이탈주민학회와 미래사회연구소 공동학술 심포지엄 단체 기념촬영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연구소는 북한이탈주민학회와 함께 지난달 10월 31일 국제회의실에서 '통일시대를 여는 신개념 교육'을 주제로 공동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남북하나재단 정옥임 이사장, 북한이탈주민학회 박영희 회장, 서울사이버대학교 강인 총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이탈주민학회 박영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회는 북한을 교육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통일시대에 남과 북이 어떻게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자리"라면서 "이를 통해 사회 대통합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정옥임 이사장은 축사에서 "남북하나재단의 목표는 정착할 착(着), 대한민국의 한(韓)을 딛 '착한' 성공"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학회와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연구소(소장 채정민 교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은 다가오는 통일시대의 최대 과제인 남과 북의 지식정보 공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북한 인권 관련 단체, 연구소, 교육기관 등 각계 인사들이 모여 북한의 교육정책, 남한에서의 북한이탈주민 교육과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한국 사이버 교육사업을 집중 조명했다.

▲현재 북한교육방식과 북한이탈주민 교육실태 ▲해외 사이버교육 프로젝트로부터 시사점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주민 대상 교육 개선방향 ▲종합토론 등 총 4부로 나누어 세부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국내외 사이버교육 성공사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 북한주민과 이탈주민에 대한 사이버교육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장시간의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 끝에 기존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취합한 '블렌디드러닝(Blended Learning)'을 통일시대의 신개념 교육방식으로 제안했다.



개회사를 하는 북한이탈주민학회 박영희 회장



축사를 하는 남북하나재단 정옥임 이사장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인프라와 교육플랫폼은 그야말로 Best of the Best!

필리핀 국립 개방대학

그레이스 J. 알폰소 (Grace J. Alfonso) 총장

구리당 앞에서의 그레이스 J. 알폰소 (Grace J. Alfonso) 총장

필리핀 국립 개방대학(UPOU)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대학은 필리핀국립대(Univ. of the Philippines) 산하에 설립된 5번째 대학으로서 공립 원격대학이자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며 1995년도에 개교하였습니다. 학부과정도 있지만 석·박사과정이 주를 이루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서 교육학부, 정보통신학부, 경영-개발학부로 구성되어 있고 설립 이래 국내외 필리핀 국민들을 위해 질 높은 원격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로부터 국가원격교육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방송수업을 통해 학습을 해왔다면 이제는 디지털시대에 맞게 이러닝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원 과정의 경우 e-Portal 사이트를 통해 교수와 학생들 간 토론과 과제 등 다양한 교수학습관련 상호작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필리핀 국립대 시스템에 소속된 캠퍼스와 더불어 협약을 맺은 주립대학에 설치된 학습센터에서 오프라인 강의도 병행하고 있으며 질 관리를 위해서 각종 시험은 출석시험방식으로 실시됩니다.

필리핀의 경우,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인적자원이 많아 해외에 취업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 체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학습하나요?

말씀하신대로 전 세계에 필리핀 교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해외학생들을 위해서는 가상학습센터(Virtual Learning Center)를 통해 모든 행정과 수업절차가 온라인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험의 경우, 체류국 내 필리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협조를 얻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립대는 오랜 전통과 학문적 우수성으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POU도 입학자들이 우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떤가요?

일단 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 학부성적과 지도교수 및 고용주의 추천서, 그리고 500자 이상의 학업계획서(에세이) 제출이 필수서류입니다.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사자격증도 제출해야 하고요. 학부 입학신청자들은 고교졸업자격을 갖추면 입학은 가능합니다만, 졸업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력인사 동문도 많습니다. 제조마 비나이(Jejomar Binay)부통령께서 환경 및 천연자원관리자



교양학부 권구순 교수와 인터뷰하는 모습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역시 미구엘 주비리(Miguel Zubiri) 상원의원도 동일분야의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전공 졸업생 중에 엘리자 피네다(Eliza Pineda)와 같은 영화배우와 가수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동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학 전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원격교육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혹시 원격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원래 필리핀 국립대의 매스커뮤니케이션대학에서 영화 및 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는데 매체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원격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에 원격대학원장을 맡게 되면서 이 분야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고 2004년부터는 UPOU로 자리를 옮겨 시청각교수학습 센터장과 멀티미디어 센터장을 역임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원격교육분야에 투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전공이 거의 바뀐 듯 합니다.

이번에 본교를 방문하셨는데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방문입니다. 매번 느끼는 지지만,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미래원격교육의 모델을 구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온라인대학이면서도 우수한 인프라와 교육플랫폼은 그야말로 최고(Best of the Best)입니다. 만약 교육 콘텐츠가 영어로 제공된다면, 저희 대학과도 협력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내 인생 또 한번의 스타트!

서마클, 중앙서울마라톤 대회 참가

-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 및 교수, 직원들 국제 규모 마라톤 대회 참가
- 서사대 마라톤 클럽 '서마클', 지난 8월 창단식에서 활발히 활동 중

지난 8월, 서울사이버대학교 내에 마라톤 동아리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서사대 마라톤 클럽(이하 서마클)'이다. 서마클에서는 재학생은 물론, 교수와 교직원들이 함께 마라톤을 즐기고 있다. 그리고 그 결실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서마클을 중심으로 2014 중앙서울마라톤대회에 단체로 참가했다. 11월 9일(일) 잠실주경기장 앞에서 열린 중앙서울마라톤대회는 중앙일보·대한육상경기연맹·일간스포츠가 주최하여 서울 도심에서 늦가을의 정취를 한껏 만끽할 수 있는 국제 마라톤 대회이다. 또한 국내 유일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축제의 한마당이기도 하다. 엘리트 부문과 마스터스 부문, 휠체어 부문으로 나누어 치른 이번 대회에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마라토너들은 30여 명 정도가 참가했으며, 그 중 15명이 42.195km의 완주 테이프를 끊으며 완주의 기쁨을 안았다.



마라톤 대회 시작 전 참가자들의 단체사진

중앙서울마라톤에 참가하면 심장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후 6개월 된 하나(가명) 양의 맥박을 되살릴 수 있다. 중앙서울마라톤은 2004년부터 한국심장재단과 함께 '1m 1원 후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회에 참가한 주자가 1m를 달릴 때마다 1원씩 적립해 심장병 어린이에게 수술비를 후원하는 방식이다. 또 중앙서울마라톤은 2009년부터 국내 마라톤 대회 중 유일하게 휠체어마라톤을 동시에 치르고 있어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장애인 마라토너들이 참가하고 있다.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며 역주하는 모습



남송모 학우 (사회복지학과 4학년)

서사대 마라톤 동아리 발족에 산파 역할을 한 사람 중 한 명인 저는 풀코스를 20회 정도 완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중앙서울마라톤대회는 춘천대회와 더불어 가장 큰 대회 중 하나인데 개인적 발전과 우리 대학 발전을 마음에 담고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박종선 교수 (상담심리학과)

저는 건강관리를 위해 3년 전부터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10km 정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연습하지 못해 염려도 되지만 9번째 도전하는 이번 풀코스에서 꼭 완주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유지선 직원 (교무행정팀)

저는 학교에서 마라톤을 시작한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km 정도의 짧은 코스로 시작했고 지금은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좀 늘었지만 오늘날도 완주보다는 체력이 허락하는 한에서 안전하게 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 드립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연탄이 묻은 손을 보이며 기념촬영



추운 겨울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SCU WAVE 사회봉사단

서울사이버대학교 WAVE 사회봉사단에서는 저소득층 이웃을 위한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데 지난 12월 5일(금) 성북구 길음동 일대 가정에 연탄을 전달한 것도 그 중 하나이다. 독거노인 등 어려운 형편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힘을 합쳐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한 것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에 서울사이버대학교가 2,000장의 연탄을 기증하면서 성사하였다. 봉사단은 길음역에 모여 운동본부 측의 연탄 나를 때 주의사항과 쌓는 요령 등의 간단한 교육을 받고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총 7가구 가정에 각 300여 장의 연탄을 나르는 작업은 보기와 달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내 봉사단의 얼굴에 땀방울이 맺힐 정도였지만, 그 누구하나 힘든 기색없이 서로 협력하며 즐겁게 나눔을 진행하였다. 또한, 한 가정을 마칠 때마다 배달된 집에 살고계신 어르신께서 수고한다며 나누어 주신 한 잔의 차는 고된 작업을 잊게 하는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이번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기획한 학생지원팀 박인형 선생님은 “작년부터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연탄나눔활동이 시작되었고 올해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행복한 추억’을 찍어 드립니다



다문화 가족들과 WAVE 봉사단의 단체 기념사진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좀처럼 듣기 힘든 아이들 웃음 소리가 들린다. 삼삼오오 저마다 뭐가 그리 궁금한지 캠퍼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있다. 바로 지난 11월 1일(토) A동 5층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풍경이다. 그리고 이날은 SCU WAVE 사회봉사단이 강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함께 가족사진 촬영을 시행한 날이었다. 총 스물세 가정의 다문화가족 사진을 찍은 이번 행사에서 가족들은 처음에는 어색한 모습으로 카메라에 잘 적응하지 못했지만 자연스러운 연출을 유도하는 포토그래퍼 이남운 씨(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졸. 2010)와 SCU WAVE 사회봉사단의 도움으로 이내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순조롭게 촬영을 진행하였다. 또 한 이번 촬영에는 메이크업과 헤어 재능나눔이 이어져 가족들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찍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행사를 기획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성태 학생처장은 “이제 다문화가족은 진정한 한가족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찍히는 사람도 찍는 사람도 흐뭇한 가족촬영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갑자기 울음을 터트린 아이를 달래는 엄마와 이남운 포토그래퍼

SCU WAVE 사회봉사단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2011년 SCU WAVE 사회봉사단을 창단해 정기적으로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함께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탄 나르기, 사진 촬영, 농촌 일손 돕기, 헌혈캠페인, 재능 기부 등 학교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7회 ‘서울사이버국제디자인대전’ 시상식 진행

- 전 세계 990여 개 작품 출품, 응모작품 수준 상향화
- 예비 디자이너들에게 필수 디자인공모전으로 자리 잡아
- 서울사이버대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주관, 7년 연속 전시



디자인대전 수상자들의 단체사진



강인 총장과 대상을 수상한 정지윤 학생



개막식 컷팅하는 강인 총장과 내빈들

서울사이버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학과장 이향아 교수, 차명희 교수)가 주관한 ‘제7회 서울사이버국제디자인대전’ 시상식이 지난 12월 16일(화)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공모전의 응모분야는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산업디자인 등 3개 부문, 990여 개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창의성 · 독창성 · 실용성 등을 기준으로 30여 명의 심사위원이 총 4단계에 걸쳐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공동대상 2명(정지윤, Krissana Kochsila), 은상 3팀(Pongprecha Kittiporn, 흥원진, 백은미 · 조용완), 동상 3명(Nutsarin, 조수연, 김종열), 협회상 3명(박지민, 천경준, 김용현) 등 우수한 작품을 출품한 수상자들에게 상금과 상장이 수상됐다.

이날 수상식에 참여한 강인 총장은 “시작만큼이나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데, 올해로 벌써 7회째를 맞은 서울사이버국제디자인대전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10주년, 20주년 발전을 거듭해 대한민국 대표 디자인대전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또한 미디어를 키워드로 세계일주를 한다는 의미를 담아 대문자 ‘M’을 그래픽으로 표현해 대상을 수상한 정지윤 군(백석대 시각디자인학과 4년)은 “졸업하기 전, 참여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아서 큰 영광이다”라며 “장래에 디자인 회사를 창업하고 싶은데, 이번 수상으로 용기를 얻었고 꿈을 주는 디자인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2년부터 국제 규모로 확대 시행해 해가 거듭될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서울사이버국제디자인공모전은 예비 디자이너라면 꼭 참여해야하는 필수 공모전으로 자리 잡았다.

Welcome to the Far East

- 한러문화예술협회 이세웅 이사장, 한·러 경제포럼 참석
-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무역, 문화 투자협력 분야를 주제로 진행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세웅 이사장은 지난 12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한·러 경제포럼 “Welcome to the Far East”에 한러문화예술협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한국무역협회가 주한러시아 무역대표부 및 한러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무역, 투자협력 분야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극동지역 대통령 전권대표인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블라디미르 미클루세프스키 연해주 지사를 비롯해 러시아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도 이세웅 이사장을 비롯, 문제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해 러시아 교류에 관심이 많은 기업 및 교육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양국 정부,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 대표, 유관 연구소 등 산관학연 각계 인사가 연사로 나서며 ▲극동지역 무역 및 과학기술 협력 방안 ▲우리기업의 극동지역 투자 진출 현황과 미래 ▲한·러 교역 및 투자 정책과 환경 등을 소개했다. 극동 뿐만 아니라 이를 플랫폼으로 한 러시아 진출 확대 전략과 방법도 제시됐다.

한편 이세웅 이사장은 지난 9월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이후 다시 조우한 블라디미르 미클루세프스키 연해주 주지사와 교류 및 경제 협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세웅 이사장, 차명희 대외협력실장과 조우한 블라디미르 미클루세프스키 연해주 주지사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과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러시아대사(代)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한·러 경제포럼

2014 사회복지학부 실천역량강화 워크숍 현장

11월 22일, 29일 양일 간 사회복지학부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노인복지, 복지시설경영,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전공의 실천역량강화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5개 전공은 각각의 특성에 맞게 특강, 사례 발표, 공모전 후기 등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사회복지학부 학생이면 누구나 관심있는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열린 교육을 실천한 현장이기도 하였다.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이 살아 숨쉬고, 참여 교육에 있어 모범 답안적인 모습을 보여준 '2014 사회복지학부 실천역량강화 워크숍' 현장을 지금부터 소개한다.

사회복지네트워크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해

사회복지전공

일시 11월 29일(토) 14:00~17:00

특강 ① 네트워크와 복지공동체 :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오동준 부장

② 행정실무능력 강화 - 기관 및 사업평가 :
음봉산동 종합사회복지관 이현선 관장



노인복지실천현장에서 실제 활동에 대한
사례발표

노인복지전공

일시 11월 29일(토) 14:00~17:00

특강 ① 치매노인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쓰리A 마스다 방식 치매예방 프로그램 : 김경희 학생

② 치매노인을 위한 음악치료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나한희 학생

③ 치매노인을 위한 돌봄기법 - BPSS대응 & 사례 관리 :
이기호 학생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 후기

복지시설경영전공

일시 11월 29일(토) 15:00~17:00

특강 ① 성인지적장애인 기숙형농업전문 평생교육센터 :
신부우 학생

② 노인 복지시설 실버 놀이방 : 최경천 학생



아동문제행동이해와
아동학대특례법에 대한 전문가 특강

아동복지전공

일시 11월 22일(토) 13:00~17:30

특강 ① 우리 아이 행복하게 키우기 -
아동문제행동의 이해와 지도 :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김도연 교수

②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우리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특례법 : 서울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김용순 관장



청소년복지 현장 전문가들과의
만남의 시간

청소년복지전공

일시 11월 22일(토) 13:00~18:00

주제 청소년복지 영역별 라운드테이블 및 강점관점 사례관리 워크숍

특강 ① 사회복지사와 청소년지도사 :
서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센터장 박찬열 선생님

② 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김영미 선생님

③ 사회복지사와 청소년상담사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지선 선생님





심리상담학부 경쟁력 사업을 축하하러 방문한 강인 총장과 함께

체험, 상담의 현장 속으로

■ 2014학년도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학부 경쟁력 사업 개최

■ 센터 견학, 사례발표, 상담 시연 등 각 사업에 600여 명 이상 참가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심리상담학부가 2014 학부 경쟁력 사업을 개최하였다. 이번 경쟁력 사업은 ▲상담센터 견학(10월~11월) ▲심리검사 및 공개사례발표회(개인·군상담, 12월 13일) ▲상담 시연(가족·개인·집단상담, 12월 13일·20일) 등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쌓으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먼저 김영애 가족치료연구소 방문(11월 18일)을 포함한 상담센터 견학에 약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12월 13일(토)에 개최된 심리검사(MMPI-2, SCT) 및 공개사례발표회에는 220여 명, 마지막으로 13일과 20일 2주간에 걸쳐 실시된 상담시연에도 200여 명이 참여해 총 누적 6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한 것이다.

참가 학생들은 오프라인 대학이나 온라인 대학이나, 상담 현장과 실재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은 현실에서 이번 경쟁력 사업은 상담기관 견학 및 상담 시연, 공개사례발표회, 심리검사 체험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현장과 실재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총 3개의 학과 ▲상담심리학과 ▲가족상담학과 ▲군경상담학과로 구성된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학부는 대한민국 최초와 최고의 역사를 모두 가지고 있다. 온라인대학 최초로 만들어진 상담심리학과는 상담심리대학원 설립 및 심리상담센터의 개소와 더불어 우수한 최다 전임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2014년 현재, 국내 유일의 학부과정인 가족상담학과는 상담심리학의 기본분야와 가족상담의 전문분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군경상담학과는 2008년 국내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군, 경찰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상담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리검사 체험 사회 및 시연을 맡은 최혜라 교수



김영애 소장과 함께 가족상담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군경상담 공개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참가자



강원대 최윤미 교수가 슈퍼바이저로 진행한 개인상담 공개사례 현장



심리검사 체험을 마친 후 단체 기념 촬영



김영애 가족상담치료연구소 견학 후 단체 기념 촬영



참가자들끼리 개인 상담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세은심리상담연구소 김명순 대표와 함께한 집단상담 강의 현장

같은 이상을 지닌 대한민국과 서울사이버대학교

-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 한국 현대사의 흐름에 관한 특강 실시
-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은 현재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이념이라고 밝혀

10월 17일(금) 서울사이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는 '한국 현대사의 흐름 (북한의 동향과 현재 생각)'이라는 주제로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의 특강이 있었다. 이날 특강에는 강인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들과 많은 신일학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차 큰 호응을 이루었다. 지난 70년 간의 한국 현대사를 조 대표의 한마디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정의했다. 그 이유로 현재 전 세계에서 '인구 5천만 명 이상', '소득 3만 달러(구매력 기준)'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나라'라는 조건에 부합되는 나라는 7개국 밖에 없다면서 그 나라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앞선 여섯 나라는 전쟁으로 이러한 결과를 얻은 데 비해 대한민국은 오직 국민의 힘으로 이룬 것이기에 더욱 가치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무력투쟁은 물론 이념투쟁에서도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무력은 군인의 몫이지만 이념은 우리 국민이 탄탄한 안보의식으로 무장하여 이겨내어야 한다면서 말이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교육이념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은 현재의 대한민국에게도 꼭 필요한 철학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좋은 교육 이념이 있기에 현재의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최고의 사이버대학교로 전진하길 바란다는 인사와 함께 특강을 마무리지었다.



강연을 경청하고 있는 참석자들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조갑제 대표



특강을 마친 후 단체 기념 촬영

문화예술을 통해 행복을 찾는 시간

- 서울사이버대, 서울문화연구원 11월 포럼으로 홍승찬 교수의 '예술경영론' 개최
- 예술경영에 대한 다양한 사례발표와 이를 통한 창조경제의 연관성에 대해 강의



(사진 왼쪽 아래 세 번째부터) 이세웅 이사장, 함영준 서울문화연구원 대표, 백순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이사장, 오현금 창조문화연구소 대표

한국예술종합학교 홍승찬 교수가 지난 11월 25일(화)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예술경영론'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서울문화연구원이 매월 개최하는 문화예술포럼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특강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세웅 이사장, 김준규 전 검찰총장, 함영준 서울문화연구원 대표 등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홍승찬 교수는 고대 로마때부터 중세 유럽, 그리고 근대 일본까지 다양한 문화예술 탄생의 다양한 비화를 알려주면서 예술과 경영이 어떻게 접목되어 왔는지에 대해 강의하였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뜻하는 '메세나'가 고대 로마제국의 정치가로 예술을 후원하는 데 헌신적이었던 마케케나스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는 것부터, '오페라' 탄생의 산파 역할을 한 이탈리아 피렌체 귀족 바르디 백작, 프랑스 궁중에서 썩은 초기 '발레' 공연, 일본식 뮤지컬이라 일컬어지는 '다카라초카'의 탄생까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문화예술 공연이 당시 사회지도층 인사의 아낌없는 후원이 있었기에 탄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예술경영이야말로 현재 대한민국의 화두인 창조경제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이라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한편, 서울의 문화를 사랑하는 각계 각 층의 인사들이 모인 '서울문화연구원'은 '함께 즐기고 서로 섞이며 새로 만들어 많이 나누자'를 모토로 매달 넷째 주 화요일 모임을 가지며 문화와 예술을 통해 행복을 찾는 시간을 갖고 있다.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홍승찬 교수

성평등 사회를 위한 실현방안을 모색하다



참석자들과의 단체 기념 촬영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은 12월 2일(화) 오후 7시에 스웨덴 평등 옴부즈맨으로 활약하고 있는 Ulrika Holfelt 법무관과 Anne-Charlott Callerstig 정책개발관을 초청하여, 스웨덴의 성평등 실현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는 반차별법 및 성평등 정책과 옴부즈맨의 역할을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첫 번째 연사로 마이크를 잡은 Anne-Charlott Callerstig 정책개발관은 ‘스웨덴의 반차별법과 평등 옴부즈의 역할’을 주제로, 오늘날 ‘시민 보호’를 넘어 ‘공공 발전’을 위한 제도로서 차별법이 균형 잡힌 남녀 평등을 위해 생겨난 제도임을 들려줬다. 차별법은 성별뿐 아니라 인종, 종교 등으로부터도 차별하지 않음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평등 옴부즈맨은 조직보다 힘이 약한 개인이 문제상황이 있을 시 본인의 판단에 따라 즉각 민원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임을 알렷다.

이어 두 번째 연사로 강의한 Ulrika Holfelt 법무관은 ‘성평등 정책과

제도화: 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성차별과 관련된 사건이 실제 법으로 연결된 사례를 보여줬다. 고용현장에서의 성차별 사례, 임신한 여성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 등 성차별 갈등이 야기된 상황에서서의 갈등 조정이 비교적 제도에 따라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해 주었다.

또한, 두 연사는 공통적으로 스웨덴의 성평등이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라며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계속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강연을 마친 후 Q&A 시간에는 학생들의 다채로운 질문들이 이어졌는데, 특히 취직, 승진 등 직장 내 성평등에 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와 학생들의 현재 관심사를 알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가 선진 성평등사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Anne-Charlott Callerstig 정책개발관(왼쪽)과 Ulrika Holfelt 법무관(오른쪽)



특강을 경청하는 참석자들

건축학개론 Field Trip to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



인사동 핫 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아라리오 뮤지엄 인 스페이스 전경

건축가故 김수근의 작품이자 그의 ‘공간건축사무소’ 사옥이 아라리오 뮤지엄 인 스페이스(ARARIO Museum in SPACE, www.arariomuseum.org)라는 전시 공간으로 거듭났다. 이에 지난 10월 15일(수) 건축학개론 수강생 20여 명은 미술관 입구에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미술관투어를 시작했다. 부동산학과 홍선관 교수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참석 학생들은 현대건축의 대가인故 김수근의 작업실 공간에 들어선다는 상상만으로 기대감과 흥분을 나타내며, 세계적인 건축 아티스트 미술 컬렉션을 진지하게 감상하였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컬렉터인 아라리오의 김창일 회장은 70년대에 지어진 이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아라리오의 컬렉션을 엄선해서 배치했다. 학생들은 작가 본인의 혈액을 응고해서 만든 작품인 마크 퀴의 ‘셀프’를 비롯해서 yBA(young British Artists)의 대표작가인 트레이시 에민, 키스 해링, 수보드 굽타, 요그르 임멘도르프, 코헤이 나와, 바바라 크루거, 백남준, 권오상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들을 감상했다.

한편, ‘건축학개론’의 수업내용에서도 소개되었던 건축가故 김수근은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로서 올림픽주경기장, 경동성당, 남산자유센터 등을 설계했다.



미술관 투어 도중 기념 촬영하는 건축학개론 수강생들

학교소식

문화체험

서울사이버대학교 후원, 장선희 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in Seoul’



공연을 마치고 차명희 교수와 출연진들 기념사진



공연이 열린 광진문화예술회관 전경



자녀와 함께 공연을 보러온 교직원과 강인 총장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후원한 장선희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이 12월 7일(일) 광진문화예술회관 나루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강인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특히 이날 공연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둔 주말에 맞추어 교직원 자녀들도 함께 동행해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장선희 발레단은 호프만의 원작 동화인 호두까기 인형을 우리의 눈으로 새롭게 조명한 〈호두까기 인형 in Seoul〉을 선보였다. 서울에서 다시 태어나는 ‘우리의 호두까기 인형’은 우리가 늘 잊고 사는,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동심의 재발견이었다. 부모들에게는 잠시 잊고 있었던 동심의 세계를, 아이들에게는 꿈과 상상의 나라를 선물한 이번 공연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고 함께 감동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관객들에게 선사하였다.

한편, 이날 공연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차명희 교수가 스타라움부인 역으로 특별출연하여 큰 박수 갈채를 받았다.

입학행사

2015학년도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설명회 개최



입학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권구순 교수



신중하게 입학설명을 듣고 있는 지원자들 모습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2월 13일, 1월 3일(토) 본교 차이코프스키홀에서 2015학년도 상반기 입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학생들이 사이버대 진학 및 지원과 관련해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를 통해 대학 소개 및 생활, 학습방법, 동아리 활동 등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지원서는 입학홈페이지(apply.iscu.ac.kr) 또는 모바일을 통해 작성 가능하며, 별도의 입학 전형료 없이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일반전형부터 산업체위탁생전형, 군위탁생전형, 학사편입전형, 장애인전형 등 다양한 전형이 마련되어 있으며, 입학홈페이지에서 적합한 전형을 찾을 수 있다.

입학행사

입학 지원자 초청 공연, 연극 ‘나는 너다’



공연을 관람한 입학지원자와 교직원들



입학 지원자를 위한 부스가 마련된 공연장 로비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입학 지원자, 재학생 및 교직원들은 지난 12월 19일(금)과 20일(토) 양일 간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연극 ‘나는 너다’를 관람하였다. 특별히 이번 공연은 입학 지원자들을 위한 초청 공연 형식으로 이루어져 그 의미가 남달랐다.

‘나는 너다’는 삼둥이 아빠로 유명한 배우 송일국의 1인 2역으로 이뤄진다. 영웅 안중근과 그의 그늘에서 천대를 받아야 했던 아들 안준생으로, 송일국은 무대 위에서 예능과 또 다른 변신을 마다하지 않았다. 스토리는 안중근의 거사를 중심으로 하되, 그의 아들과 어머니, 아내의 스토리를 더해 ‘인간 안중근’에 대한 면모를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애국심으로 몸 바친 독립운동가의 가족들이 겪어야했던 아픔을 고스란히 전한다.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은 이야기가 주는 묵직함에 탄식과 분노를, 흔히 담긴 출연진들의 연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특히 문화체험행사에 처음 참가한 예비신입생들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학생 서비스는 특별하다고 감탄했으며 앞으로 서사대인으로서 누릴 다양한 문화특전에 대해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학교소식

수상

남상규 교무지원실장, 한국대학신문 직원대상 수상

본교 남상규 교무지원실장(대학발전추진단 부단장)이 지난 10월 15일(수)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거행된 제6회 한국대학신문 직원대상 사이버대 일반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지난 2001년부터 사이버대학 원년 멤버로 원격대학 관련 제도 전반의 개선과 향상에 힘써온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남상규 실장은 먼저 이러한 큰 상을 주신 주최 측에 감사하며 “노키아 같은 거대기업이 수년만에 시장에서 사라지는 파괴적인 변화가 고등교육에도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고 환경변수를 고려하면서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며 사이버대학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10년에 교과부(現 교육부)로부터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한 남 실장은 현재 원격대학협의회 ▲교학행정협의회장 ▲발전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교육부로부터 위촉받아 사이버대학 설립 및 전환인가 이행점검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의 사이버대학 학사편람 개편 TFT 집필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원격대학협의회 박영규 회장과 남상규 교무지원실장



시상식을 마치고 한국대학신문, 원대협 관계자와 함께

봉사

10년째 이어온 아름다운 사람들의 봉사활동



경로잔치 현장에서 아사모 단체 기념사진



어르신들을 위해 장기자랑을 하는 아사모 회원들

2003년 결성된 서울사이버대학교 자원봉사 동아리 ‘아사모(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서울시립수락양로원에서 어르신들에게 발마사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매년 10월이 되면 경로잔치를 열었는데 올해에도 지난 10월 12일(일), 5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평소 심시일반으로 매달 모은 회비로 선물과 식사 대접, 그리고 장기자랑 등을 펼쳐 7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잔치의 한마당을 선사하였다.

재학생과 졸업생이 모여 현재 19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아사모는 활동을 인정받아 매년 서울사이버대학교 우수 동아리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노원구청 연말 시상식에서 동아리 임원들이 나란히 표창을 받는 등 대학을 넘어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서울 북부지역 대표 자원봉사동아리로 자리매김하였다.

앞으로도 아사모는 따뜻한 가슴을 지닌 회원들과 대학 및 지역 봉사에 힘쓰는 나눔의 매개체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교내행사

세븐일레븐 ‘CEO와의 대화’ 본교에서 개최

서울사이버대학교와 MOU를 체결한 세븐일레븐이 11월 21일(금) 차이코프스키홀에서 전국 매니저들이 참석한 가운데 ‘CEO와의 대화’ 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 시작에 앞서 세븐일레븐 정승인 대표이사는 강인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귀한 곳을 제공해 준 서울사이버대학교 측에 감사하고 이를 계기로 더욱 세븐일레븐과 본교와의 관계가 돈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인 총장 또한 CEO와 직원들이 허심탄회하게 회사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에 감명받았다면서 세계 1등 편의점의 원동력이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화답하였다.

전국 140여 명의 세븐일레븐 매니저들이 모인 이날 행사에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리더가 되자”라는 주제로 정승인 대표이사의 특강을 시작으로, 기념촬영, 회사 미래에 대한 2분 Speech, 임원 Qui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원과 대표 간의 격의 없는 시간이 이어졌다.

한편 이 날 행사에는 참석자들이 미래의 서사대인으로 다시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모일 날을 기대하며 이완형 입학처장의 입학 설명회도 함께 진행되었다.



리더십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세븐일레븐 정승인 대표이사



3분 스피치를 통해 회사 발전방안을 이야기하는 매니저들

교내행사

한국노인복지학회, 2014 추계학술대회 개최



축사를 하고 있는 강인 총장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

한국노인복지학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후원한 2014 추계학술대회가 11월 14일(금)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자유발표와 기획발표를 통해 노인복지의 쟁점이 되고 있는 노인빈곤 문제와 전망에 대해 최근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은 단순히 연례적인 세미나에 그치지 않고 이 시대의 변화와 발전의 주역이었던 노인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게 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기회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학술대회가 되었다.

| 학교소식

외빈방문

세계적인 인구학 석학을 우리대학 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과 한국인구학회(회장 김한곤)는 12월 16일(화), 서울 프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에서 21세기 인구변동과 사회 변화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본교 이은주 부총장과 정영애 대학원장이 참석하여 현대사회에 발생하는 인구문제에 대해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국제심포지움에는 '21세기 인구변동과 사회변화'라는 주제로 최근 연구된 12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참석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선진국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정책 수립에 좋은 시사점을 주는 심포지움이 되었다.

이 날 심포지움에 앞서 15일(월)에는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Poston 교수, 하버드대학교 Teitebaum 교수, 콜로라도 대학교 Rogers 교수, 코넬 대학교 Lichter 교수, 싱가포르국립대학교 Jones 교수 등이 본교를 방문해 한국의 온라인 고등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구리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을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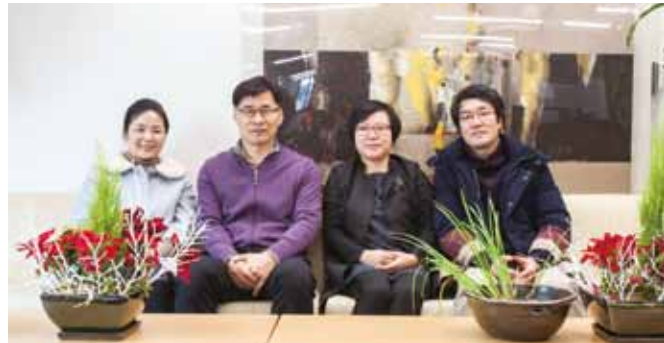


세계적인 인구학 석학들의 본교 방문. 왼쪽부터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Poston 교수, 코넬 대학교 Lichter 교수, 한국인구학회 김한곤 회장, 텍사스주립대학교 Ellison 교수, 하버드대학교 Teitebaum 교수,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Jones 교수, 보도인대학교 Riley 교수, 콜로라도 대학교 Rogers 교수, 스페인 나바라국립대 Zamora 교수, 본교 이은주 부총장



국제심포지엄을 마치고 단체 기념 촬영

기증행사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 김용숙 교수, 이석민 교수
서울사이버국제디자인대전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작품작 기증

(사진 왼쪽부터) 김용숙 교수, 민복기 원장, 이향아 교수, 이석민 교수



영락노인전문요양병원에 기증한 작품작들

제7회 2014 서울사이버국제디자인대전이 막을 내린 후 서울사이버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학과장 이향아 교수, 차명희 교수)의 교수들이 지난 12월 30일에 디자인대전에 전시했던 본인의 작품들을 사회복지법인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노인전문요양원(원장 민복기)에 기증하였다.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영락노인전문요양원은 서울사이버대학교와 MOU체결을 한 곳으로 현재 대학원생 4명이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특히 민복기 원장은 현재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전공 겸임교수로도 재직하고 있어 더욱 인연이 깊은 곳이기도 하다.

이번 기증은 노인복지전공 권금주 교수가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에게 소개하면서 이루어졌다. 매해 이어오던 서울사이버국제디자인대전 작품 기증행사에 이번에는 영락노인전문요양원이 선택된 것이다. 영락노인전문요양원 민복기 원장은 "이번 작품 기증으로 우리 시설이 한 층 더 밝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요양실 한 곳, 한 곳에 소중하게 배치하여 어르신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영락교회 6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영락노인전문요양원은 어르신들에게 가정과 같은 따뜻한 공간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체결

국제원산지정보원과 산학협약 체결



협약식 후 양 기관 대표들의 기념 촬영

지난 12월 22일(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국내 유일의 FTA전문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원장 김기영)과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FTA 인재양성을 위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양 기관은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FTA 관련 온라인 교육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수준 높고 폭 넓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오프라인 교육 협력에 나서게 되며, 이 일환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내년부터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원산지관리사 온라인 기본교육과정을 제공받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 강인 총장은 "급변하는 교육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기관의 노력은 우수한 교원의 확보와 최고의 시설투자"라며, "국제원산지정보원과 손잡음으로써 보다 완성도 높은 교육과정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국제원산지정보원 김기영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가상공간의 FTA 교육을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협약식 전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 일행과 환담 중인 강인 총장

신년예배

2015 을미년 새해 시무 예배

새해를 맞아 학교법인 신일학원은 지난 1월 2일 차이코프스키홀에서 이세웅 이사장, 강인 총장, 최경호 신일고등학교 교장 등 전 신일학원 관계자들이 모여 '을미년 시무예배'를 드렸다. 신병철 신일고등학교 교감의 인도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이기우 협동교장의 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직원으로 구성된 서울사이버대 신우회의 특송, 학교법인 이사 박영국 목사의 말씀, 교목실장 박종규 목사의 축도 그리고 이세웅 이사장의 신년사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세웅 이사장은 신년사에서 "작년 한 해는 우리에게 큰 사건 사고가 많은 한 해였다"면서 "비운 뒤에 땅이 굳듯 올해에는 지난 일을 잘 극복하고 이를 교훈 삼아 좀 더 성숙하게 발전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신년사가 끝난 뒤 강인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새해 각오를 듣는 시간도 이어졌으며 참석자들 모두 을미년에는 개인적으로도, 학교발전에 서도 일보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예배가 끝난 후 학교법인 신일학원 내외빈 단체사진



교목실장 박종규 목사의 축도

교수동정

고윤승 교수

e비즈니스와 코칭 관련 논문 게재

경영학과 고윤승 교수는 2014년 10월 24, 25 일 간 '정책포럼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공유경제의 진화에 관한 소고」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어 12월에는 국제e비즈니스학회에서 발간하는 『e-비즈니스연구』 제15권 제6호에 「ICT 발달에 따른 공유경제에 대한 소고」를, 한국통상정보학회에서 발간하는 『통상정보연구』 제16권 제5호에 「사물인터넷(IoT)의 주요국 정책과 시장전망에 관한 연구」를, 과학문화디자인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한국과학예술포럼』 제18호에 "Understanding the coaching industry(코칭산업의 이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권구순 교수

국제관계 관련 논문 발표

교양학부 권구순 교수는 2014년 10월 31일에 열린 '2014 북한이탈주민학회 서사대 미래사회연구소 공동학술 심포지엄'에서 「카자흐스탄 이라닝연수사업이 남북한 원격교육 협력에 주는 함의」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4년 12월 5일부터 이튿날까지 개최된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PKO패널'에서 "Evaluation on Peace Operations of the ROK's Military Contingents to UN Missions"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권금주 교수

치매관리 서비스 관련 논문 발표

노인복지전공 권금주 교수는 2014년 12월 5일 '한국케어메니지먼트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지역사회 치매관리 서비스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동환 교수

부동산 관련 논문 게재

부동산학과 김동환 교수는 2014년 12월 30일 『대한부동산학회지』 32권 2호에 「ARIMA 모형을 이용한 주택시장의 가격예측 분석」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에서 방문투표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 두 편을 게재하였다. 또 같은 날 한국부동산분석학회에서 발행하는 『부동산학연구』 제20집 제4호에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의사결정 실증분석」 논문을 게재하였다.

김선정 교수

법무행정 관련 논문 게재

법무행정학과 김선정 교수는 2014년 12월 30일 『한국행정사학지』 35호에 「국가행정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연구-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31일에는 『한국테러학회보』 제7권 제4호에 「민족, 분쟁 그리고 테러리즘」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김영민 교수

물류안전 관련 논문 게재

국제무역물류학과 김영민 교수는 2014년 12월 30일 한국물류학회가 발행하는 『물류학회지』에 「물류기업 종사자의 운송부문 물류안전 인식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김용희 교수

지역공간 관련 논문 게재

부동산학과 김용희 교수는 2014년 11월 30일 『한국지역지리학회지』에 「지가를 통한 충청권의 지역공간구조분석」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김윤나 교수

인권 관련 논문 게재

사회복지전공 김윤나 교수는 2014년 12월 30일 법과인권교육학회가 발행하는 『법과 인권교육연구』 학술지에 「제3국 출생 비보호 탈북청소년의 인권 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김지영 교수

청소년학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지영 교수는 2014년 11월 한국청소년학회에서 발행하는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11호에 「대학생의 성격강점 및 덕성과 성격장애와의 관계」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김현아 교수

학업심리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현아 교수는 2014년 11월 28일 한국콘텐츠학회지에 「사이버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의 매개효과」라는 공동연구 논문을 게재하였다.

김현진 교수

가족의사소통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현진 교수는 2014년 11월 30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행하는 학회지 『한국청소년연구』에 「중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애착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가족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분석」이라는 공동연구 논문을 공신지자로서 게재하였다.

김환 교수

상담심리 관련 저서 출간

상담심리학과 김환 교수는 실제 삶에서 공감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2014년 11월 20일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감 연습』(소울메이트)을 출간하였다.

박기훈 교수

사회복지 관련 논문 발표

사회복지전공 박기훈 교수는 2014년 10월 30일 국제e-비즈니스학회에서 발행하는 『e-비즈니스연구』에 「학습자 특성별 스마트러닝의 유용성, 용이성, 사용의도 및 학습만족도 차이 분석」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또 11월 14일에는 '한국노인복지학회 2014 추계학술대회'에서 「고령자 노동력 활용을 위한 중간적 노동의 가능성 및 문제점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박병석 교수

탈중화 민족형성 관련 논문 게재

국제무역물류학과 박병석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중견학자 지원으로 연구한 「탈중화(脫中華) 민족형성 사례 연구: 대만민족 형성의 정당성, 경로 및 한계」라는 논문을 『정치사상연구』(한국정치사상학회) 제20집 2호(2014년 가을호)에 게재하였고, 2014년 12월 23일 (사)현대중국연구회와 중국사회과학원 한국연구센터 공동 주최 국제학술회의인 '2014 한중인문학술교류포럼'에서 「동북아 협력의 사상적 기초: 중국 최고 영도자의 대외연설 중 중국 전통사상 인용 수사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심선경 교수

사회복지행정 관련 저서 출간

복지시설경영전공 심선경 교수는 2014년 9월 5일 『사회복지행정론』(공동체)을 공저자로 참여하여 출간하였다.

윤경목 교수

인공지능 관련 논문 게재

컴퓨터정보통신학과 윤경목 교수는 2014년 10월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지에 「유전알고리즘과 신경망 파라미터 값들의 변동에 의한 영화 추천시스템 성능향상」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문숙 교수

국제사회 관련 논문 발표

사회복지전공 이문숙 교수는 2014년 11월 21일 '한국콘텐츠학회 2014 추계 종합학술대회'에서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의 on-line 대학교에서의 교육경험과 그들의 필요」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달 28일 '한국인구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프랑스의 저출산문제 해소 요인」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성태 교수

문화콘텐츠 관련 저서 공동출간 및 작품전시

문화콘텐츠공학과 이성태 교수는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 연구의 현장』을 공동 출간하였다. 또 2014년 10월 27일 Korea Society of Design Trend가 주관하는 작품전시회에서 "I want to see, the hearts"를 29일까지 전시하였고,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한국콘텐츠학회가 주관하는 전시회에서 단독으로 작업한 "Yeosu Night Sea"라는 작품을 전시하였다.

이완형 교수

국제무역 관련 논문 게재

국제무역물류학과 이완형 교수는 2014년 12월 30일 한국무역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무역연구』 제10권 제6호에 「한·중 무역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지역산업단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우경 교수

논문 게재 및 번역서 출간

상담심리학과 이우경 교수는 2015년 1월 『인간의 발달: 출생부터 성인기까지 위기와 적응에 대한 미네소타 연구』번역서를 출간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연구』 12월호에 「단축형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이 조선소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자영 교수

학업심리 관련 논문 게재

군경상담학과 이자영 교수는 2014년 11월 28일 한국콘텐츠학회지에 「사이버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의 매개효과」라는 공동연구 논문을 게재하였고, 같은 달 30일 한국산학기술학회지에 「완벽주의와 학업소진간의 관계: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지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라는 공동연구 논문을(주 저자로) 게재하였다.

이정원 교수

군심리학 관련 논문 게재 및 저서 출간

군경상담학과 이정원 교수는 2014년 11월 10일 『군 스트레스 심리학』(교문사)을 공동저자로 출간하였다. 같은 달 22일에는 한국목회상담학회지 『목회와 상담』 23권 2호에 「군부적응자를 위한 희망의 목회적 돌봄」 논문을, 26일에는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이 발행하는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11호에 「그린캠프 입소자를 위한 문제해결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교수동정



이재웅 교수

부동산 법률 관련 논문 게재

부동산학과 이재웅 교수는 2014년 12월 31일 『법학논총』 제38권 제4호에 「무등록중개행위자의 중개보수청구에 대한 법적 고찰 -일본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이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게재하였다.



이향아 교수

디자인 작품 전시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는 2014년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주관하는 작품 전시회에서 단독으로 작업한 "Bloom"을 선보였다. 11월에는 21일부터 24일까지 한국콘텐츠학회가 주관한 전시회에서 "Creative Contents Korea"라는 개인작품을, 27일부터 29일까지는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주관한 전시회에서 "가을빛"이라는 개인작품을 전시하였다.



이희연 교수

청소년복지 관련 논문 발표

청소년복지전공 이희연 교수는 2014년 12월에 단독저자로 KCI등재지 『학교사회복지』 29권에 「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의 사례 관리 실천경험 -경기도지역을 중심으로-」를, KCI등재후보지 『법과인권교육연구』 7권 3호에 「교육복지사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및 경험」 등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임정선 교수

소통과 심리 관련 논문 발표

상담심리학과 임정선 교수는 2014년 12월 18일 '한국입법정책학회 제39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소통의 부재-직장 내 언어폭력의 심리적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임세희 교수

아동복지 관련 논문 게재

아동복지전공 임세희 교수는 2014년 12월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에서 발행하는 SSCI논문집인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에 "The effects of private tutoring and parenting behaviors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 Are there differences between low-and high-income groups"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전광호 교수

경영학 관련 논문 게재

경영학과 전광호 교수는 2014년 12월 『상품학연구』 32권 6호에 「영업성과에 대한 영업사원의 학습활동, 적응적 판매, 직무만족의 영향력」을, 『유통경영학지』 17권 6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동기와 성과가 유통기업 종원업의 관계의 질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서비스마케팅저널』 7권 2호에 「온라인 강의 콘텐츠 품질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의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정상원 교수

사회복지 관련 논문 발표

사회복지전공 정상원 교수는 2014년 11월 28일 인구학회가 주관한 '한국인구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사회자본 유형과 사회봉사처 선택행동과의 관계」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정영애 교수

저출산 및 보육 관련 논문 발표

사회복지전공 정영애 교수는 2014년 11월 28일 '한국인구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저출산문제와 한국 보육정책 파라다임의 전환」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차명희 교수

디자인 작품 전시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차명희 교수는 한국콘텐츠학회 주관하는 ICCC 2014 Fall International Digital Design Invitation Exhibition에 "Robot Zoo"라는 주제로 작품을 출품하고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삼육대학교에서 전시하였다. 또한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에서 주최한 Cutting Edge 2014 Best Digital Designer Invited International Exhibition에 "CONE"이라는 주제로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시하였다.



허재현 교수

논문 게재 및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보건행정학과 허재현 교수는 2014년 10월 31일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제학회가 발행하는 『산업경제연구(KCI등재지)』에서 단독저자로 「국내제약회사의 의약품생산과 기업 이익에 대한 탐색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또한 2014년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2014 Fall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Korea' 학술대회에서 "An Exploratory Study on Firm's Drug Production Behavior and Financial Profits in South Korea" 및 "Market Competition and Market Share in Selected Reimbursement Pharmaceutical Markets"라는 제목의 포스터 2편을 발표하였다.



홍선관 교수

하우징 시스템 관련 논문 게재

부동산학과 홍선관 교수는 2014년 11월 30일 'Science & Engineering Research Support Society(SERSC)'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Role of Housing System in MMORPG(Multi Massive Online Role Playing Game)"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새해를 맞이하며 즐기는 문화 생활

2015년 새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나요? 이루고 싶은 많은 계획 중에 문화 향유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해에는 보다 더 문화를 즐기고 풍족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며 책,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 생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립니다.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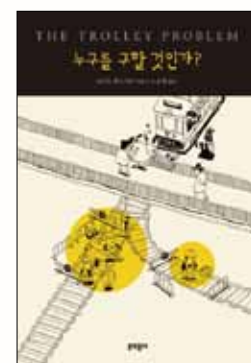
동서양 미술의 완전한 만남

〈다, 그림이다〉

저자 이주은, 손철주
출판 이봄

전통 회화와 동양 고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유려한 필치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손철주, 서양 미술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통찰의 바탕 위에서 담백하고 감칠맛 나는 글쓰기를 하는 이주은. 손철주가 동양화로 편지를 쓰면, 이주은이 서양화로 화답하는 구성이 재미를 더

친한다. 이 책은 동서양 명화를 한 데서 보고, 알아가고, 느끼는 재미는 기본이고 현대인들이 지나치기 쉬운 예술의 가치들, 그 작품들이 말하는 삶의 가치들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도덕성에 관한 치열한 논쟁

〈누구를 구할 것인가〉

저자 토머스 캐스카트
역자 노승영
출판 문학동네

우리의 기본권인 생존권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보다 중요할까? 무고한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지만 자신의 행동이 그런 결과를 낳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면? 이 책은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가 자신의 강연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첫 토론 주제로 삼아 더욱 화제가 된 '트롤리 문제'를 '법정 소송'이라는 극적인 장치를 통해 이 복잡한 문제를 독자들이 훨씬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유죄인가, 무죄인가. 독자들은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할 것이다.

Performances



원작 영화의 감성 그 이상!

한국 초연 브로드웨이 뮤지컬

〈원스〉

2012년 3월 브로드웨이로 진출한 뮤지컬 〈원스〉는 원작 영화 '원스'의 명성에 이어 독창적인 연출선과 진솔한 스토리로 8개 부문 수상, 12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는 등 뮤지컬에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상을 섭렵하며 평단과 관객 모두를 사로잡았다. 오리지널 공연과 똑같은 형태로 제작되는 뮤지컬 〈원스〉의 한국 공연은 가수 윤도현, 이창희, 전미도, 박지연 등 연기, 노래, 춤, 연주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음악가 겸 배우들이 출연한다. 이들이 선사하는 〈원스〉 특유의 순수한 열정과 에너지는 독창적인 무대와 진솔하고 가슴 시린 이야기, 그리고 우리 귀에 익숙한 아름다운 음악과 더불어 모든 면에서 잊혀지지 않을 모습으로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기간 2014. 12.3 ~ 2015. 3.29

장소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환상의 세계로 초대하는 미술전

〈블라디미르 쿠쉬〉

뛰어난 상상력과 몽환적이고 동화적인 표현으로 '러시아의 달리', '세대와 시대를 아우르는 작가'라 평 받는 블라디미르 쿠쉬가 한국 첫 특별전을 가진다. 그는 'Union of Artist'전을 참여하면서 미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미국 LA 'American Odyssey'전에서 환상적인 초현실주의 작품들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다. 이번 전시는 회화, 오브제, 주얼리 등 미공개작을 포함한 총 170여 점이 한국 최초로 전시되며, 무의식, 욕망, 환상의 3가지 테마의 영상과 드로잉 작품으로 구성된 작가의 방과, 드로잉 조각 섹션에서 만날 수 있다.

기간 2014. 12.23 ~ 2015. 4.5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층